

사순 제 4 주일 화답송 [나해]

시편 137(136), 1-2. 3. 4-5. 6

(후렴) 내가너를 생각하지않는다 면, 내허가입천장에 달라붙으리 라.

<p>1. 바 빌론 강 기슭 거기에 앉아</p> <p>2. 우 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노래를 부르라 하는구나.</p> <p>3. 우 리 어찌 남의 나라 낯선 땅에서</p> <p>4. 내 가 만일 예루살렘</p>	<p>시 온을 그리며 눈물짓노라.</p> <p>압 제자들이 흥을 돋우라 올려대는구나.</p> <p>주 님의 노래 부를 수 있으랴?</p> <p>너 를 생각하지 않는다면,</p>

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에 우 리의 비파를 걸었 노 - 라.
"시 온의 노래를 불러라. 우 리에게 한가락 불러 보 아 라."
예 루살렘아,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 손이 굳어 버리 리 - 라.
너 를 가장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 붙으 리 - 라.
큰 기쁨으로

사순 제 4 주일 복음환호송 나해

말 씬 이 신 그리 스도 님, 찬 미 받 으 소 - 서.

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
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 시 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 셧 네.